

다자이 오사무의 『여시아문(如是我聞)』 에 나타난 작가의식 고찰

신 현 선*

(e-mail: kokesi77@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며
 2. 양행과 가정의 예고이즘 비판
 3. ‘이웃사랑’의 이중성
 4. 시대적 글쓰기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
 5. 나오며
-

1. 들어가며

다자이 오사무(太宰治:1909~1948, 이하 ‘다자이’)의 『여시아문(如是我聞)』¹⁾은 1948년에 쓰인 수필이다. 이 작품은 외국문학자, 문단의 선배,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등의 노작가, 질서와 체제에 안주하는 문화인들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작품에서 다자이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에 대한 공감을 표출하면서 그 속에 자기 존재에 대한 고뇌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의식의 양상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외국문학자, 문화인, 노대가, 문단의 선배들에 대한 비난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그는 전후 기성의 질서와 제도를 압제와 속박이라고 인식하고 문단의 대가 시가 나오야(志賀直哉)를 격렬하게 공격한다. 시가 나오야는 강자의 무리의 위선과 기만을 비판하기 위한 상징적 인물인 것이다.

* 전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1)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불경에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것을 최대한 제 3자의 입장에서 일체의 개인적 생각이나 판단 없이 본 대로만 말한다는 뜻으로 객관적 전달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먼저 작가적 관점에서 시가와 다자이를 대극에 놓고 논한 것이 많다.²⁾ 특히 하세가와 이즈미(長谷川泉)³⁾와 도고 가쓰미(東郷克美)⁴⁾의 논쟁이 발전을 보인다. 『여시아문』의 문제는 문단 가십적인 관심만이 아닌 다자이 문학에서 시가 나오야의 위치와 영향관계를 논하게 하였다.

한편 기독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복음설과 율법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자이의 성서 수용을 보면 늘 성서와 기독교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는 신앙, 구원으로서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추구하고자 한 점에서 독자적 신앙이 있었다고 본다. 아에바 다카오(饗庭孝男)⁵⁾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였고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⁶⁾는 『여시아문』과 기독교의 상관성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여시아문』은 기독교 관련 논의가 많았지만 본고는 이를 탈피하여 전략적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전체적으로는 기독교를 수용한 듯 보이나 그것이 논의의 주안점은 아니다.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나와 기독교가 부각되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해 줄 다른 측면이 나와야 한다.

『여시아문』은 수필이지만 신변잡기적 성격보다는 시가 나오야의 글에 반발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그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점이 많다. 이를 반박, 예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의 내용적 보완과 이해가 필요하다.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치면 일관성과 연계성, 주제의식, 각 인물들의 성격 및 서사구조와 부합되지 않는다. 주가 되는 것은 현실이므로 현실과 결부시키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작품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본질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작품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근본적인 성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왜 도구로서 작용하는가’를 전체적 맥락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예가 될 수 있다.

-
- 2) 野平健一(1998,7), 『志賀直哉と「如是我聞」』, 新潮95(7), pp.58-66.
 久保田 輝男(1999,3), 『太宰治「如是我聞」をめぐって-志賀直哉と太宰治』, 同朋文学 (29), pp.79-110
 相馬正一(2003,8), 『志賀直哉と太宰治-「如是我聞」と「和解」』, 国文学解釈と鑑賞 68(8), pp.76-82.
 関谷一郎(1999,9), 『如是我聞』, 国文学解釈と鑑賞 64(9), pp.137-143.
 山下明(1977,11), 『太宰文学の総決算としての「如是我聞」』, 文学と教育 (102), pp.27-35.
 吉岡真緒(2008,6), 『太宰治「如是我聞」論-接続点としての「私」』, 太宰治スタディーズの会, pp.90-100.
- 3) 長谷川泉(1983,6), 『如是我聞』, 国文学解釈と鑑賞 48(9), pp.102-109.
- 4) 東郷克美(1972,7), 『太宰治の「如是我聞」論争』, 解釋と鑑賞. (安藤宏・神谷忠孝 編(1995), 『太宰治全作品研究事典』, 勉誠社, p.216에서 재인용)
- 5) 饗庭孝男(1976), 『「如是我聞」とキリスト教』(太宰治論), 講談社.(東郷克美 編(1995), 『太宰治事典』, 學燈社, p.148에서 재인용) 아에바는 다자이에게 성서와 기독교가 생의 구원보다 오히려 자기 인식의 수단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다.
- 6) 佐藤泰正(1976,5), 『弱者の倫理-「如是我聞」を中心に』(太宰治論), 国文学, pp.148-153.

본 연구는 기왕의 편향된 연구에서 벗어나 작가론적 입장에 서서 전략적, 실험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보이는 개인 비판과 성구 인용, 즉 작가의 감정 표출과 종교 인식이라는 틀에 한하지 않고 그 속에 내포된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작품에 담고 있는 여러 사건과 문제의 의미를 작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동시대를 바라보는 다자이의 작가적 문제의식과 더불어 존재에 대한 탐구정신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⁷⁾

2. 양행과 가정의 예고이즘 비판

『여시아문』은 자신을 비판한 문인들을 향한 반론의 글이다. 그는 공격해야 할 상대의 태반을 소위 문화인의 스타, 기운에 편승하는 자들, 구태의연한 것을 구태의연한 채 긍정하는 자들로 삼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정연해지기까지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어항에 해초를 집어넣었을 때의 다소의 혼탁함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작가(주 공격대상-시가 나오야), 외국 문학자(洋行者)⁸⁾, 문화인을 공격한다.

다자이가 공격하는 대상은 문화 권력같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며, 질서와 체제에 안주하려는 소수 특권층(소수 문화 향유층)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의 특권 의식은 작가 의식뿐만 아니라 작품의 제재나 내용 측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양행담(洋行談)’과 같은 서구 지향성을 띠고 있다.

내가 이 여시아문이라는, 속세적인 평가로는 분명히 어리석은 짓인 글쓰기를 발표하는 것은,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싸움인 것이다.(중략) 너희들은 고뇌의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능력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너희들은 애무할지는 모르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도덕은, 너희들 자신의, 혹은 너희들 가족의 보전 외에는 한결음도 떼지 않는다. (『여시아문』, pp.361-362)

저의 싸움,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옛것과의 싸움입니다. 흔해빠진 잘난 척에 대한 싸움입니다. 뻔히 보이는 외식에 대한 싸움입니다. 인색한 일, 인색한 자를 향한 싸움입니다. 저는 여호와에게라도 맹세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시

7) 본고는 『太宰治 全集10』(筑摩書房, 1982)를 주 텍스트로 삼는다.

8) 서구 문물을 흡수한 서구 문물 세력자.

저는 혼자 항상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리고는 아무래도 질 것만 같아졌습니다.

기성세대는 심보가 고약합니다. 무엇이 어떻다며 진부하기 짝이 없는 문학론인지 예술론인지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늘어놓으면서, 그러면서도 필사적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짓밟고는 더구나 그러는 자기 자신도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대단합니다. (『美男子と煙草』⁹⁾, pp.325-326)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자이는 중심부에 있는 문화인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것은 ‘도쿄’라는 수도와 표준어를 사용하는 문화지리학적인 중심부에 있는 ‘시가 나오야’와 지방과 방언을 사용하는 주변부에 있는 ‘다자이’와의 대립이다. 나아가 ‘서구적인 것(중심)’과 ‘동양적(일본적)인 것’과의 대립이다. 다자이는 그들을 ‘가정의 예고이즘’과 ‘洋行’이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가정의 예고이즘’은 노작가, 외국문학자, 문화인들이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쌓은 자신들만의 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洋行’을 통해서 서구의 것을 무작정 높이며, 그 문화를 소수만이 향유하려고 하는 문화사대주의적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양행자의 여행담만큼 공허한 울림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 시골뜨기의 도쿄 여행담과 매우 닮아있다. 명승지 엽서. 거기에는 시민의 생활 내음이 전혀 없다”며 양행자의 이중성과 비열함을 지적한다.

그들의 예고이즘·냉혹함·자만심이 독자의 노예근성과 매치되어 서로 속이기가 성립하고 있다고 본 그는 양행자가 걸치레 말을 쉽게 하는 양태를 꼬집어 “은근과 복수. 짓밟혀 기가 죽은 문화 원숭이”라며 그들의 실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님을 우회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어두운 내면을 노출시키고 그 허구성과 작위성을 과감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편승하는 자들”, “구태의연한 것을 구태의연한 채 긍정하는 자들”을 공격하며 새로운 질서가 정연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양행자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학문의 진정성을 퇴보시키는 표면적 우수성에만 집착하는 자들의 지식의 걸치레에 대한 경고이다. 걸치레에 집중하는 그들의 이중성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통제, 운영되고 있음을 개탄한 것이다.

진정한 학문 탐구는 진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기 수양도 추구해야 한다. 나의 삶을 도외시한 진리탐구는 단지 지식의 탐구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은 자신

9) 『太宰治 全集9』(1982), 筑摩書房.

을 위한 학문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내면의 수양을 통해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간 학문인 반면, 후자는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걸치레 학문을 의미한다.

지식의 학문에만 매달려 자신의 성찰과 사색에는 소홀한 위정자들은 학문적 고매함을 위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중과의 분리를 추구한다. 일반 대중과는 차별된다는 이러한 우월감은 의식 없는 동경과 무분별한 수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바탕을 무시하고 걸치레만 일삼는 그들의 행태는 다자이를 비평적 입장에서 반발하게 하였다.

한 무리의 노대가라는 자가 있다. 나는 그자들 중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그자들의 자신만만함에 질렸다. 그들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소위 그들의 신은 무엇일까? 나는 요즘에서야 겨우 그것을 알았다. 가정이다. 가정의 에고이즘이다. 그것이 궁극적인 기원이다. (pp.341-342)

예문에서 그는 노대가들의 자신만만함을 지적하면서 “필경 가정생활의 안락만이 최후의 염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그들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들의 신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원인을 ‘가정’과 ‘가정의 에고이즘’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약함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모두 무학(無學)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사하는 것을 폭력으로 간주한다.

대체 시가 나오야란 사람의 작품은 엄격하다느니 뭐니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짓으로, 달콤한 가정생활, 주인공의 격에 맞지 않는 응석 같은 방자함, 요컨대 그 쉽게 즐거워 보이는 생활이 매력이 되고 있는 듯하다. 졸부에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돈이 있고,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라고-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자랐다는 데 대한 자부심은 우리가 보면 완전 난센스고 웃기는 것이지만, 그들이 촌놈이라고 할 때, 얼마나 깊은 경멸감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것은 독자 제군의 상상 이상이다.- 도락가, 아니 조금 불량스럽고, 뼈대가 단단하고(중략) 잔인한 작가이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그는 진부하고 난폭한 작가이다. 케케묵은 문학관에서 한 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완고함. 그는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교활이다. 잘 되기만 하면, 하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p.361)

예문은 자신과 상대적 처지와 위치에 있는 시가 나오야를 대상으로 작가의 심리를 노출시키고 있다. 객관적 인식 하에 모든 이들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시가에 대해 작가는 그 속에 감춰진 실상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며 비판적 감정의 잣대를 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문호가 다자이를

도쿄말을 모른다고 폄하하는 데 대해 그는 오히려 그 사람이야말로 ‘도쿄에 태어나 도쿄에서 자란 것’, 그것에만 의지하여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반박하기도 한다. 문단의 대가 시가 나오야를 ‘아마추어’라고 폄하하고 정면 도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훌륭함도 ‘자만’에 지나지 않으며 ‘완력을 자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나아가 “너희들이 얻은 것은 문단 생활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세속적인 신뢰뿐”이라며 그 주변 무리들의 예고이즘, 냉혹함, 자만심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세상의 지위 보전을 위해 애쓰는 비열한 존재로 치부한다.

작가는 원만한 가정을 위해 “예수로부터 도망치고, 시로부터 도망치고”, “저널리즘의 주문에 응해 랍비인 척 가장”하는 그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학자여.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지만 안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구나”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학자들의 위선을 공격한다. 이는 ‘고뇌’하지 않는 문단의 선배들, 고뇌 없는 삶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총체적인 비판이다.

이전의 다자이의 생애와 작품을 보면 남성성(아버지)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와 자본주의·계급의 질서, 기성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적 특성에 주목하여 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즉 작가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반봉건·반제국주의, 나아가 일본 주체의식까지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소위 젊은이들도 칠칠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위계질서를 뒤엎을 용기가 없는가? 그대들에게 맛이 없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변해야 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자살밖에 없다고 실감한다. (p.345)

여기서는 문단상황, 격돌, 양행, 사대주의, 그리고 봉건적인 것을 타파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서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즉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정체성, 주체성 안에서 수용하고 타파해야 함을 설파한 것이다. 그의 비판은 그릇된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위계질서, 봉건적인 것을 전복시킬 용기를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안에서 다시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적 수용은 주체성 상실로 이어지므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도록 작가는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자살밖에 없다”고 작가는 항변하고 있다.

정체성이 몸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죽음은 자아의 궁극적 종말을 상징한다. 다자이의 작품은 자살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 자살은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강렬한 희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 자살은 세계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의 방법이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도시켜 죽음에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한다.¹⁰⁾ 삶과 죽음이 자연이라면 의식적인 자살은 자연의 이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의 의지를 거역하고 자연에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이 거부와 저항, 전복 의지를 자살에까지 비유하며 양행과 가정의 예고이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3. ‘이웃사랑’의 이중성

다자이 작품에는 성구가 인용된 작품이 적지 않다. 다자이의 전 작품 150여편 중 성구 인용 및 신에 관한 생각을 담은 작품을 합하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성서의 영향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박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지낸 前期를 지나 中期에 이르러 더욱 커져 절정에 이른다.

다자이의 성서입문은 1935년 『성서지식(聖書知識)』¹¹⁾을 읽기 시작했을 무렵으로 추정된다. 다자이에게 성서의 영향을 준 사람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즈카모토 도라지(塚本虎二)이다. 그들은 무교회주의자로 다자이는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성서에 입문하게 된다.

우치무라의 수필집만은, 일주일 정도 내 머리맡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수필집에서 두 세 마디의 말을 인용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전부 인용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자연’과 같이 놀라운 책이었다.(『碧眼托鉢』¹²⁾, p.65)

그는 우치무라의 수필집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느꼈고 성서에 심취해간다. 엄격하고 성서적인 무교회주의자들을 통하여 성서를 접한 다자이는 스스로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은 읽습니다”(『一問一答』)¹³⁾에서도 그런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서양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정

10) 이부순(2005), 『한국전후소설과 전도적 상상력』, 새미, p.226 참조.

11) 우치무라 간조(1861-1930)의 제자 즈카모토 도라지(1885-1973)는 1930년 우치무라에게서 독립한 후, 성서연구를 비롯하여 무교회주의의 전도를 목적으로 이 잡지를 출간했다. (田中良彦(1994), 『太宰治と『聖書知識』』, 朝文社, p.87 참조.)

12) 『太宰治 全集10』(1982), 筑摩書房, p.65.

신을 기본으로 하여 성서 한 권에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는 “즈카모토 도라지를 폐하의 교사로 삼고 싶다는 공상을 하고 있다(誰)”처럼 천황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것을 주장하며 그리스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자유사상의 대변자이며 그리스도 정신은 사상의 기본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자이 문학에서 차지하는 성서의 위치는 매우 크며 다자이와 성서는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1941년 『누구(誰)』에는 마가복음 8장 27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¹⁵⁾라는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대화를 인용하여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 무렵 나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졌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며 끊임없이 신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시아문』에서도 “서양 문학은 성경을 주축으로 회전하는 수만 개의 별”이라고 표현하며 문학에서의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웃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에 작가의 고뇌와 예수의 고뇌가 중첩되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내 고뇌의 거의 전부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난제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자. 너희들은 고뇌의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능력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너희들은 애무할지는 모르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도덕은, 너희들 자신의, 혹은 너희들 가족의 보전 외에는 한결음도 떼지 않는다.

다시 묻는다. 세상에서 내쫓겨도 좋다.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죄인가? 나는 내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믿기 어려울 테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약함과 고뇌는 죄인가? (『여시아문』, p.362)

예문과 관련하여 다자이가 『답장(返事)』에서 “너희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저의 처음 모토이고, 최후의 모토입니다”¹⁶⁾라고 한 것처럼 작가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웃사랑’의 중요성은 작품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구절로 다자이가 ‘이웃사랑’이 갖

13) 『太宰治 全集10』(1982), 筑摩書房, p.259.

14) “다자이가 알아서 대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정기 구독자가 된 잡지는 『성서지식』 뿐이다”라고 하는 미치코(美知子)부인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무렵 다자이는 성서 세계에 심취해 있었다.(津島美知子(1978), 『回想の太宰治』, 人文書院, p.159 참조.)

15) 『太宰治 全集4』(1982), 筑摩書房, p.369.

16) 『太宰治 全集10』(1982), 筑摩書房, p.308.

는 의미에 얼마나 구애받고 고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이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감정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찬스(チャンス)』¹⁷⁾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사랑’은 난해하고 복잡한 감정으로 치부되고 있다. 오직 신만이 사랑의 시혜자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은 수혜자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즉 인간이 신처럼 시혜자로 기능하면 이로 인한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내 반생을 말하다(わが半生を語る)』에서도 기독교의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인간은 모두 똑같다. 그런 사상은 그저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요?”¹⁸⁾라는 말에 작가적 고뇌의 대부분이 함축되어 있다. 자신은 싫어하고 학대하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것을 강요하면 결국 자살만 남게 된다. 이를 확신한 그는 자신 역시도 사랑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교리를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강자와 약자로 분류되어 적용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다자이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노작가를 반박한다. 여기에서 ‘이웃사랑’은 기독교의 교리와 축어적으로는 같지만 다자이는 이것을 수사법의 하나인 인유(引喩)¹⁹⁾로 교리를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자이는 노작가, 외국문학자, 문화인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문학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는 작가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양행담’이 아닌 주변에 있는 이웃의 이야기를 작품화할 것을 주장한다. 다자이는 이를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소재를 이용하여 중심문단의 작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한 ‘이웃’은 가정으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권력, 힘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력욕, 문학가의 자질의 문제, 주제의식·작가의식 有無의 문제이며 집단주의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가정 원만. 처자와 함께 스위트 홈 만세를 부르며 보들레르 소개문을 쓰는 당치않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원문으로 읽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명역을 자랑하여 팔아먹는 모순도 물론이고 도대체가 자네들은 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예수로부터 도망치고, 시로부터 도망치고, 그저 단

17) 『太宰治 全集8』(1982), 筑摩書房, p.257.

18) 『太宰治 全集10』(1982), 筑摩書房, p.328.

19) 비유법의 하나로 유명한 시가(詩歌), 문장, 속담, 고사(故事) 따위를 자신의 문장 표현에 인용하여 표현 내용이 함축성을 띠도록 보충하는 수사법이다.

순한 어학 교사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여, 저널리즘의 주문에 응해 랍비인 척 가장하는 모양인데, 자네들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받는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가.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슬며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꼴불견이지. (p.348)

예문에서 작가는 지위 보전을 위해 세상의 신뢰를 이용하는 자들의 행태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그들을 ‘랍비’에 비유하며 예수로부터 도망치고, 시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작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소명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독교의 교리를 예로 들어 부연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가의 삶은 세속적 성공·출세와 요원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세상의 신뢰와 권위를 획득하는 수법의 글쓰기를 지양하고 자기 성찰의 보고서가 되는 글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독자와 상호 소통하며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자이는 여기에 ‘이웃사랑’의 길이 있다고 보았다. 중심과 주변의 싸움, 이를 위해 ‘이웃’이라는 소재를 가져와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사랑’은 기독교적 교리에서 기인한 어휘이지만 그 안에 종교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미약하다고 여겨진다. 다자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찾기 위한 학문적인 관심, 즉 존재론적 자기 인식 수단으로 기독교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학자여,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위선적인 학자여.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지만 안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p.346)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자신을 비판한 대상에 대한 다자이의 공격적 글이다. 여기에는 거친 언어와 조롱 등의 글쓰기 전략이 엿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웃사랑’도 공격적 글쓰기의 수사적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학자들아,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반박하는 것에서도 성구를 통한 역설적 비판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설을 통한 저항과 비판은 다자이의 작가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작가로서의 소명을 인식시키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웃사랑’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말로서 기능한다. 삶의 바탕인 현실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교리를 끌어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가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자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성구가 인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 성구 인용은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적 측면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4. 시대적 글쓰기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

다자이는 “좀 더 약해져라. 문학가라면 약해져라. 유연해져라. 네 방식 이외의 것을, 아니 그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강하다는 것, 자신이 있다는 것은 작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이들에게 작가로서의 소명과 의식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작품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되묻는다.

‘이 시대에 작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작가는 어떤 작품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 매진한 다자이의 작품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반봉건적이고 반제국적이며 사회적 약자(서열, 과부, 노동자 등 주변부에 위치한)에 대한 글을 쓴 그의 작품세계와도 연관된다.

또한 어느 외국 문학자가 “작가는 이 작품 뒤에서 히히히 웃고 있다”고 평한 데 대해 그는 “나는 작품을 쓰면서 죽을 만큼 힘든 노력을 한 기억은 있어도, ‘히히히’ 웃은 기억은 지금껏 한 번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한다. 그리고 부연하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논하면서 작가의 마음을 다한 것이 독자에게 통했을 때 문학의 영원성, 문학의 존귀함, 기쁨 등이 비로소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원래 작가와 평자와 독자와의 관계는, 예를 들면 정삼각형의 각 정점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Δ 와 같은 위치에 각각 밖을 향해 앉아 있어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각각 안으로 마주앉아서 작자는 말하고 독자는 듣고 평자는 혹은 작가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혹은 미심쩍은 것을 확인하고, 혹은 독자를 대신해서 중지를 요청한다. (p.353)

예문에는 작가와 평자와 독자라는 삼자의 관계가 서술되어 있다. 삼각형을 예로 들어 각자 삼각형 안을 향해야만 비로소 조화로운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즉 어느 한쪽만 부각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여기에는 작가의 존재성

은 평자와 독자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을 정점에 올려놓는 순간 관계의 고리는 끊어진다.

작가는 작품을 매개로 대화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성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자문해야 한다. 이는 작가의 존재성을 방증하고 나아가 사회의 언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작가의 실존적 물음, 즉 작가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분명히 의식하고 규명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이 “예술에는 보수도 부하도 친구조차 없다”고 본 작가의 사상에는 시대성과 진정성이 함축되어 있다. 굴절된 현실을 통해 이상향을 볼 때 예술의 진정성은 빛을 발한다. 삶에 뿌리내린 예술이야말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 즉 문학에서 진정성을 추구하고자 한 그의 자세는 “읽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봉사”라는 표현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고뇌’ 없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여러 선배들에 대해 가장 불만인 점은 “고뇌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다는 점”을 들며 “약함과 고뇌는 죄인가”를 다시 반문한다. 그들이 아쿠타가와(芥川)의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는 ‘그들에 숨어 사는 자의 고뇌’, ‘약함’, ‘성경’, ‘생활의 공포’, ‘패자의 기도’에 눈을 돌릴 것을 촉구한다.

자기 긍정에 가득 찬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덕목은 무엇보다 ‘겸양’이었다. 그는 학자의 본질에 대해 고심하면서 자만심과 자부심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지위보전에만 급급한 그들에게 고귀함이란 약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고뇌와 약함에 대해 무감각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가의 진정성, 즉 마음을 다하는 자세라고 본 것이다.

작가의 진정한 피로움은 허구를 안출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많은 작가들이 작가적 피로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세상의 신뢰를 이용하고 있지만 세상의 신뢰에 편승하지 말고 세속적인 신뢰를 경계하라고 말한다. 이는 작가로서의 소명을 일깨우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여시아문』이라는 글쓰기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교하고 있다. 그들의 말이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임을 간파하면서 모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는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 무언의 강요를 일삼는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주체적 존재로 발전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자이는 강하다는 것, 자신이 있다는 것 등은 작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아님을 확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문학’이라는 장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진지하게 자기와 대면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면서 독자와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촉구한다. 창작 주체의 열린 의식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각성도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기성의 권위와 윤리에 반역을 시도했던 무뢰파 작가 다자이는 군국주의 가부장제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항하여 자기 고백적 문학으로 작가적 고뇌를 표출하였다. ‘여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그는 줄곧 해방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억압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억압 기제를 폭로하였으며 폐쇄적 존재 구조를 거부하였다. 이는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모습은 곧 다자이의 정체성 구명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 정체성, 즉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한 ‘존재 찾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시아문』은 외국문학자, 문단의 선배, 시가 나오야 등의 ‘노작가’, 질서와 체제에 안주하는 ‘문화인’들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다자이의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열망과 고뇌가 내재해 있다.

소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는 작가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양행담(洋行談)’이 아닌 주변에 있는 이웃의 이야기를 작품화할 것을 주장한다. 다자이는 이를 ‘이웃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소재를 이용하여 중심문단의 작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성구가 인용된 것으로 반어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적 측면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자신을 비판한 대상에 대한 다자이의 공격적 글이다. 여기에는 거친 언어와 조롱 등의 글쓰기 전략이 엿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웃사랑’도 공격적 글쓰기의 수사적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설을 통한 저항과 비판은 다자이의 작가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작가로서의 소명을 인식시키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다자이는 작가로서의 소명과 의식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작품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 되묻는다. 이와 같은 질문은 결국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 매진한 다자이의 작품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반봉건적이고 반제국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글을 쓴 그의 작품세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모습은 작가적 정체성, 나아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존재 찾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參考文獻】

- 이부순(2005), 『한국전후소설과 전도적 상상력』, 새미, p.226.
『太宰治 全集4』(1982), 筑摩書房.
『太宰治 全集8』(1982), 筑摩書房.
『太宰治 全集9』(1982), 筑摩書房.
『太宰治 全集10』(1982), 筑摩書房.
安藤宏·神谷忠孝 編(1995), 『太宰治全作品研究事典』, 勉誠社, p.216.
久保田輝男(1999,3), 『太宰治 「如是我聞」을めぐって-志賀直哉と太宰治』, 同朋文学(29), pp.79-110.
佐藤泰正(1976,5), 『弱者の倫理-「如是我聞」を中心に』(太宰治論), 国文学, pp.148-153.
関谷一郎(1999,9), 『如是我聞』, 国文学解釈と鑑賞 64(9), pp.137-143.
相馬正一(2003,8), 『志賀直哉と太宰治-「如是我聞」と「和解」』, 国文学解釈と鑑賞68(8), pp.76-82.
野平健一(1998,7), 『志賀直哉と「如是我聞」』, 新潮95(7), pp.58-66.
田中良彦(1994), 『太宰治と「聖書知識」』, 朝文社, p.87.
津島美知子(1978), 『回想の太宰治』, 人文書院, p.159.
東郷克美 編(1995), 『太宰治事典』, 學燈社, p.148.
長谷川泉(1983,6), 『如是我聞』, 国文学解釈と鑑賞48(9), pp.102-109.
山下明(1977,11), 『太宰文学の総決算としての「如是我聞」』, 文学と教育(102), pp.27-35.
吉岡真緒(2008,6), 『太宰治 「如是我聞」論-接続点としての「私」』, 太宰治スタディーズの会, pp.90-100.

要 旨

『如是我聞』は外国文学者、文壇の先輩、志賀直哉らの「老作家」、秩序と体制に安住する「文化人」らに向けた批判が主をなしている。特に、太宰の自分の存在の根源に対する熱望と苦悩が内在している。

素材的な側面から見れば、彼は作家としての使命意識を持ち、「洋行談」ではない周辺にいる隣人の話を作品化することを主張している。太宰はこれを「隣人愛」というキリスト教的素材を利用して中心文壇の作家を批判している。これは作家意識を表わすための道具として成句が引用されたことによって反語的役割をしている。

この文章は自身を批判した対象に対する太宰の攻撃的な文章だ。ここには荒々しい言語と嘲弄などの文章戦略が窺える。これを通して見ると、「隣人愛」も攻撃的な文章の修辭的戦略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に逆説による抵抗と批判は太宰の作家的主体性を表わす手段であり、作家としての使命を認識させる過程だということがわかる。

したがって、自身の存在を発見して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ていく姿は、まさに太宰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究明過程と見ることができる。ひいては、国家的アイデンティティ、すなわち日本の将来についても悩んだ「存在探し」の過程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キーワード：洋行、キリスト教、聖書、作家、アイデンティティ、隣人愛、逆説、批判

투 고 : 2013. 11. 30
1차 심사 : 2013. 12. 14
2차 심사 : 2014. 1. 4